

ESG Strategy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형주가 결국 대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부터 즉시 시행

25년 7월 기재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3년 한시 특례 제안. 과세 구간과 세율의 보수적 설정으로 실효성 우려 제기. 11월 당정대 협의로 조정 이 이뤄지며 수정안 도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거쳐 12월 23일 공포. 26년부터 시행.

혜택 대상, 우수형 고배당기업과 노력형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혜택 대상은 개별 상장법인의 25년 결산 현금배당. 요건은 24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으면서 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우수형) ②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며 전년대비 현금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해당 (노력형).

'머니무브', 수급으로 차이가 나타날 것

기존 제도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최고 49.5% 종합소득세율 적용. 연 2,000만 원 이상 이자소득 보유 개인 기준 세후 수익률 관점에서 배당주 투자 매력 제한. 제도 변경 후 2,000만~3억 구간은 20%, 3억~50억 구간은 25% 단일세율 적용. 기회비용 측면에서 고배당주 투자 유인 확대.

24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약 23조 원 규모. 이자소득은 약 14조 원 규모. 연이율 3% 가정 시 이자소득의 원금은 약 470조 원에 해당. 원금의 20%만 배당주로 이동해도 약 94조 원 규모의 수급 부양 효과 발생.

선호 Pick: ① 실적+유보이익, ② 금융+지주, ③ 지배구조 우수

① **실적+유보이익**: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율 개선폭이 커 달성이 어려우나, 견조한 실적과 큰 유보이익을 바탕으로 결산 배당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등

② **금융+지주**: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은 위험선호 성향이 낮을 것. 우량주 가운데 저평가 돼 있어 높은 배당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사와 지주사가 선호될 가능성 높음. 금융사·지주사 평균 PBR은 각각 0.9배 수준. 지주사의 25년 평균 배당성향·배당증가율은 각각 25% 추정. 금융사(은행·보험·증권)의 25년 평균 배당성향·배당증가율은 각각 34%·25% 예상.

③ **지배구조 우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주주환원+배당 지표 긍정평가가 많은 경우 안정적인고 꾸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 긍정평가 기업 202개 가운데 192개 기업(95%) 배당 실시. 평균 배당성향 28%, 배당증가율 15%, 낮은 배당 변동성이 특징. 부정평가 기업 252개 가운데 169개(67%) 배당 실시, 평균 배당성향 23%, 배당증가율 20%, 높은 배당 변동성 두드러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요건 충족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머니무브의 신호탄

표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 정리표

적용대상	개별 상장법인의 현금배당 (리츠사 제외)		
적용요건	①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		
	②③ <우수형> 25년 결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OR),		
	②④ <노력형> 25년 결산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며 (AND), 전년 대비 배당증가율이 10% 이상일 것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 (3년 한시 특례)		
적용세율	신규 (분리과세)	배당소득 과세구간	과거
	14%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20%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종합소득세율 적용 (구간별 6~49.5%)
	25%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30%	50억 원 초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3년 한시적 세제 혜택이다. 고배당기업은 이른바 ‘우수형’과 ‘노력형’으로 분리된다. 우수형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며, 노력형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인 기업들로 두 유형 모두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대선 때 위험을 감수한 투자소득과 예금 등 무/저위험 금융소득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에서 출발한 정책으로,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던 자금을 주식 등 모험자산으로 이동시키려는 이른바 ‘머니 무브(Money Move)’ 정책과도 맞물려있다.

머니무브, 예금에서 주식으로

표 2. 2024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억 원)

	신고인원	소득금액계	금융소득액	이자소득액	배당소득액	금융소득외 소득
2천만 원 이하	3,277	4,650	165	117	48	4,485
2천만 원~3억 원	178,207	628,593	204,921	114,073	90,848	423,672
3억 원 초과	80,468	247,708	164,344	27,296	137,048	83,365

자료: 국세통계포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적 핵심은 예금 등에 집중된 이자소득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 2024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총액은 약 14조 원이며, 같은 기준의 배당소득은 약 23조 원으로 위험 감수 여부를 고려하면 규모 차이는 제한적이다.

이자소득 14조 원이 평균 연이율 3%의 예금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원금은 약 471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의 자금만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약 94조 원 규모의 수급 유입이 가능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수급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코스피 고배당기업 후보군 - 실적 + 유보이익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애널리스트 추정 결산 배당 규모를 점검한 결과,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은 총 33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15개사는 우수형 후보군, 18개사는 노력형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배당기준월이 12월 이후로 남아 있어 수급 개선 여지가 있는 기업은 우수형 9개사, 노력형 11개사다.

우수형·노력형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연간 배당총액을 산출하고 실적·유보이익을 고려한 결과, 우수형 후보군에서는 기업은행, LS일렉트릭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아는 부담은 있으나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노력형 후보군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등이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특히 배당락월이 12월 이후인 현대차·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는 수급 측면의 여지가 남아 있다.

표 3. [참고] 고배당기업 목록 속성 이해 참고표

배당 금액 변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기업 해당 요건				지배구조보고서 주주환원/배당정책 지표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우수형	노력형		주주환원 정책 수립	O/X	
개시	금년 배당 개시	표식	배당성향	배당성향	배당증가율	주주환원 정책 통지	O/X	
유지	전년과 동일	◎ - 충족	40% 이상	25% 이상	10% 이상	배당예측가능성 정관 반영	O/X	
감소	전년 대비 감소	○ - 근접	30~40%	20~25%	5~10%	배당정책 및 실시 계획 통지	O/X	
중단	금년 배당 중단	△ - 부족	25~30%	15~20%	0~5%	녹색음영	O 3개 이상	O/X 각 2개
미실시	배당 미실시	X - 미달	25% 미만	15% 미만	0% 미만	적색음영	X 3개 이상	무음영 데이터 없음

자료: 국가법령센터,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지배구조보고서는 FY24 기준 데이터, 금융기업은 공시 의무 없음

표 4. 시가총액 1조 이상 코스피 고배당기업 혜택요건 충족 '후보군' (녹색음영 = 주주환원 우수 / 적색음영 = 주주환원 미흡)

구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억 원)	PBR (배)	W126업종명(대)	지배순익 (억 원)	배당 기준월	현금배당(보통주) (억 원)	배당금액 변화	배당성장 (%)	배당증가율 (%, YoY)	우수형 배당성장 40% ▲	노력형 배당성장 25% ▲	배당증가 10% ▲	요건충족배당 (억 원)
			26.01	26.01		2025E		2024A 2025E	24A/25E	2025E	24A/25E				2025E
우수형	A000270	기아	487,626	1.04	자동차	77,307	3월	25,590 24,580	감소	31.8	(3.9)	○	◎	X	28,149
후보군	A024110	기업은행	161,877	0.48	은행	27,619	3월	8,493 9,027	증가	32.7	6.3	○	◎	○	9,342
	A010120	LS ELECTRIC	144,750	4.47	기계	2,809	12월	861 911	증가	32.4	5.8	○	◎	○	947
	A000100	유한양행	90,604	4.26	건강관리	1,331	12월	369 400	증가	30.0	8.4	○	◎	○	406
	A003490	대한항공	79,720	0.77	운송	8,901	12월	2,762 2,774	증가	31.2	0.4	○	◎	△	3,038
	A021240	코웨이	57,096	2.80	화장품, 의류, 완구	6,144	12월	1,891 1,912	증가	31.1	1.1	○	◎	△	2,080
	A241560	두산밥캣	54,926	1.63	기계	4,292	12월	1,591 1,566	감소	36.5	(1.6)	○	◎	X	1,717
	A078930	GS	51,847	0.67	에너지	7,270	3월	2,508 2,495	감소	34.3	(0.5)	○	◎	X	2,759
	A103140	풍산	31,948	1.51	비철, 목재등	2,007	3월	710 717	증가	35.7	0.9	○	◎	△	781
	A192820	코스맥스	19,657	5.41	화장품, 의류, 완구	731	12월	261 266	증가	36.4	1.9	○	◎	△	287
	A282330	BGF리테일	17,681	1.58	소매(유통)	1,868	3월	708 726	증가	38.9	2.5	○	◎	△	747
	A007070	GS리테일	16,847	0.42	소매(유통)	1,479	3월	418 445	증가	30.1	6.4	○	◎	○	460
	A001120	LX인터내셔널	12,364	0.41	상사, 자본재	2,356	3월	719 752	증가	31.9	4.5	○	◎	△	791
	A005300	롯데칠성	11,654	0.76	필수소비재	973	3월	315 325	증가	33.4	2.9	○	◎	△	347
	A089860	롯데렌탈	10,711	0.83	운송	1,353	3월	436 444	증가	32.8	1.9	○	◎	△	479
노력형	A005930	삼성전자	8,216,457	2.29	반도체	403,268	12월	86,215 90,267	증가	22.4	4.7	X	○	△	100,817
후보군	A005380	현대차	697,200	0.78	자동차	109,474	3월	24,392 24,731	증가	22.6	1.4	X	○	△	27,368
	A028260	삼성물산	459,787	0.83	상사, 자본재	21,703	12월	4,216 4,504	증가	20.8	6.8	X	○	○	5,426
	A055550	신한지주	376,259	1.26	은행	51,118	2월	10,880 11,729	증가	22.9	7.8	X	○	○	12,780
	A086790	하나금융지주	255,781	1.21	은행	40,703	3월	10,159 10,620	증가	26.1	4.5	△	◎	△	11,175
	A009150	삼성전기	203,167	2.24	IT하드웨어	6,835	12월	1,308 1,429	증가	20.9	9.2	X	○	○	1,709
	A011200	HMM	188,270	0.75	운송	18,718	2월	5,286 5,494	증가	29.4	3.9	△	◎	△	5,815
	A042700	한미반도체	176,995	14.28	반도체	2,399	3월	683 686	증가	28.6	0.5	△	◎	△	751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135,798	1.78	소프트웨어	7,892	12월	2,243 2,304	증가	29.2	2.7	△	◎	△	2,467
	A001040	CJ	50,856	2.07	상사, 자본재	4,190	4월	812 881	증가	21.0	8.6	X	○	○	1,048
	A271560	오리온	41,315	2.61	필수소비재	4,141	3월	988 1,015	증가	24.5	2.7	X	○	△	1,087
	A097950	CJ제일제당	30,635	0.68	필수소비재	3,418	3월	882 948	증가	27.7	7.6	△	◎	○	970
	A204320	HL만도	26,625	0.81	자동차	1,419	3월	329 343	증가	24.2	4.4	X	○	△	362
	A011210	현대위아	22,789	0.37	자동차	1,273	3월	293 313	증가	24.6	6.7	X	○	○	322
	A028670	팬오션	20,554	0.38	운송	3,439	12월	641 694	증가	20.2	8.2	X	○	○	860
	A006280	녹십자	18,500	1.15	건강관리	621	12월	171 175	증가	28.2	2.4	△	◎	△	188
	A285130	SK케미칼	11,521	0.91	화학	863	3월	198 199	증가	23.1	0.4	X	○	△	218
	A185750	종근당	11,443	1.16	건강관리	681	12월	138 148	증가	21.8	7.3	X	○	○	170

자료: FnGuide,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연결 기준, 2025년 애널리스트 추정치 사용 (일부 수치 보정), 리츠사 제외

코스피 고배당기업 목록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2025년 애널리스트 배당 추정치로 분석한 결과, 우수형 또는 노력형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62개사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SK 텔레콤, 강원랜드, 한샘 등 3개사는 배당 감소가 예상돼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APR, 포스코퓨처엠, 한온시스템 등 3개사는 배당을 개시했거나 향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거 배당 일정 기준으로는 42개사가 2025년 1분기에 배당락일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수급 유입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표 5. 시가총액 1조 이상 고배당기업 혜택요건 충족 기업

구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억 원) 26.01	PBR (배) 26.01	WI26업종명(대)	지배당기준익 (억 원) 2025E	배당 기준월	보통주현금배당 (억 원) 2024A 2025E	배당금액 변화 24A/25E	배당성향 (%) 2025E	배당증가율 (%, YoY) 24A/25E	우수형 배당성향 40% ▲	노력형 배당성향 25% ▲ 10% ▲	
우수형	A032830	삼성생명	318,400	0.86	보험	23,828	12월	8,081 11,182	증가	46.9	38.4	◎	◎	◎
	A005490	POSCO홀딩스	243,204	0.43	철강	10,614	3월	7,575 8,221	증가	77.5	8.5	◎	◎	○
	A010130	고려아연	224,519	2.32	비철,목재등	7,871	12월	3,418 3,499	증가	44.5	2.4	◎	◎	△
	A000810	삼성화재	216,943	1.06	보험	21,046	3월	7,567 9,609	증가	45.7	27.0	◎	◎	◎
	A033780	KT&G	168,117	1.85	필수소비재	10,336	3월	5,884 7,036	증가	68.1	19.6	◎	◎	◎
	A003670	포스코퓨처엠	158,769	3.25	화학	435		0 196	개시	45.0		◎	◎	
	A003550	LG	125,536	1.17	상사,자본재	12,251	3월	4,687 5,158	증가	42.1	10.0	◎	◎	◎
	A017670	SK텔레콤	113,409	1.05	통신서비스	4,101	3월	7,536 4,212	감소	102.7	(44.1)	◎	◎	X
	A323410	카카오뱅크	101,603	1.69	은행	4,661	3월	1,715 2,144	증가	46.0	25.0	◎	◎	◎
	A010950	S-Oil	91,755	0.84	에너지	950		141 533	증가	56.1	278.7	◎	◎	◎
	A047050	포스코인티내셔널	84,179	1.45	상사,자본재	6,414	3월	2,642 3,045	증가	47.5	15.3	◎	◎	◎
	A443060	HD현대마린솔루션	82,531	12.56	조선	2,658	3월	1,410 1,718	증가	64.7	21.8	◎	◎	◎
	A278470	에이피알	81,225	26.84	화장품,의류,완구	2,802		0 1,356	개시	48.4		◎	◎	
	A005940	NH투자증권	74,120	0.87	증권	9,464	3월	3,105 4,043	증가	42.7	30.2	◎	◎	◎
	A032640	LG유플러스	61,723	0.75	통신서비스	5,845	3월	2,794 2,837	증가	48.5	1.5	◎	◎	△
	A029780	삼성카드	60,478	0.64	은행	6,503	3월	2,988 3,244	증가	49.9	8.6	◎	◎	○
	A064400	LG씨엔에스	58,810	2.59	소프트웨어	4,063	12월	1,458 1,683	증가	41.4	15.5	◎	◎	◎
	A051900	LG생활건강	40,169	1.03	화장품,의류,완구	1,296	3월	513 581	증가	44.8	13.3	◎	◎	◎
	A004020	현대제철	38,766	0.24	철강	538	3월	987 1,019	증가	189.6	3.3	◎	◎	△
	A035250	강원랜드	38,680	0.95	호텔,레저서비스	3,037	4월	2,345 1,856	감소	61.1	(20.8)	◎	◎	X
	A052690	한전기술	36,921	5.20	유틸리티	958	12월	380 433	증가	45.2	13.9	◎	◎	◎
	A017800	현대엘리베이터	33,698	2.32	기계	1,679	12월	1,986 2,346	증가	139.7	18.1	◎	◎	◎
	A031210	서울보증보험	32,083	0.69	보험	2,340	4월	2,000 2,000	유지	85.5	0.0	◎	◎	△
	A012750	에스원	27,625	1.70	상사,자본재	1,825	12월	913 1,045	증가	57.3	14.5	◎	◎	◎
	A081660	미스토홀딩스	25,390	3.39	화장품,의류,완구	2,393	4월	695 966	증가	40.4	39.1	◎	◎	◎
	A030000	제일기획	23,353	3.97	미디어,교육	2,112	12월	1,246 1,443	증가	68.3	15.9	◎	◎	◎
	A051600	한전KPS	22,230	1.65	유틸리티	1,525	12월	1,111 948	감소	62.1	(14.7)	◎	◎	X
	A353200	대덕전자	21,027	1.66	IT하드웨어	469	3월	198 198	증가	42.2	0.1	◎	◎	△
	A001430	세아베스틸지주	20,800	0.55	철강	669	3월	385 434	증가	64.9	12.5	◎	◎	◎
	A023530	롯데쇼핑	19,491	0.14	소매(유통)	876	3월	1,074 1,075	증가	122.7	0.1	◎	◎	△
	A018880	한온시스템	19,005	0.74	자동차	460		0 379	개시	82.3		◎	◎	
	A484870	엠앤씨솔루션	13,951	11.31	상사,자본재	470	12월	135 238	증가	50.6	75.7	◎	◎	◎
	A000080	하이트진로	12,337	1.15	필수소비재	1,132	12월	481 499	증가	44.0	3.8	◎	◎	△
	A001800	오리온홀딩스	12,178	0.67	필수소비재	1,280	3월	481 532	증가	41.6	10.6	◎	◎	◎
	A300720	한일시멘트	12,142	0.85	건설,건축관련	945	12월	693 735	증가	77.8	6.2	◎	◎	○
	A120110	코오롱인더	11,324	0.32	화학	735	12월	358 413	증가	56.2	15.4	◎	◎	◎
	A181710	NHN	10,596	0.51	소프트웨어	358	3월	159 167	증가	46.6	4.8	◎	◎	△
	A009240	한샘	10,190	2.03	건설,건축관련	431		1,416 1,258	감소	291.5	(11.2)	◎	◎	X

노력형	A329180	HD현대중공업	610,874	7.07	조선	15,768	3월	1,855	5,417	증가	34.4	192.0	○	◎	◎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310,726	12.47	기계	7,127	2월	1,926	2,359	증가	33.1	22.5	○	◎	◎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300,432	2.45	조선	23,718	3월	3,606	6,119	증가	25.8	69.7	△	◎	◎
	A316140	우리금융지주	200,036	0.79	은행	32,860	3월	8,910	9,915	증가	30.2	11.3	○	◎	◎
	A086280	현대글로비스	167,625	1.52	운송	16,962	3월	2,775	4,260	증가	25.1	53.5	△	◎	◎
	A267250	HD현대	155,221	1.82	조선	9,880	3월	2,544	2,875	증가	29.1	13.0	△	◎	◎
	A352820	하이브	142,825	4.04	미디어,교육	386	3월	83	154	증가	39.8	85.1	○	◎	◎
	A047810	한국항공우주	139,194	5.76	상사,자본재	2,153	4월	487	550	증가	25.5	12.8	△	◎	◎
	A030200	KT	129,791	0.81	통신서비스	17,301	3월	4,916	6,108	증가	35.3	24.2	○	◎	◎
	A005830	DB손해보험	87,509	0.90	보험	14,839	3월	4,083	4,870	증가	32.8	19.3	○	◎	◎
	A039490	키움증권	81,910	1.12	증권	11,124	12월	1,784	2,930	증가	26.3	64.3	△	◎	◎
	A090430	아모레퍼시픽	70,191	1.69	화장품,의류,완구	2,946	3월	657	755	증가	25.6	14.8	△	◎	◎
	A016360	삼성증권	68,493	0.87	증권	10,096	12월	3,126	3,569	증가	35.4	14.2	○	◎	◎
	A138930	BNK금융지주	48,201	0.91	은행	8,409	3월	2,074	2,303	증가	27.4	11.0	△	◎	◎
	A175330	JB금융지주	47,281	1.81	은행	7,056	3월	1,897	2,172	증가	30.8	14.5	○	◎	◎
	A004170	신세계	24,692	0.37	소매(유통)	1,169	3월	395	444	증가	38.0	12.5	○	◎	◎
	A000240	한국엔컴퍼니	23,402	0.81	자동차	3,855	3월	947	1,044	증가	27.1	10.3	△	◎	◎
	A003690	코리안리	22,190	0.54	보험	3,170	4월	910	1,072	증가	33.8	17.7	○	◎	◎
	A002790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0,540	1.12	화장품,의류,완구	1,521	3월	252	397	증가	26.1	57.8	△	◎	◎
	A483650	달바글로벌	17,281	9.77	화장품,의류,완구	799	12월	35	310	증가	38.8	785.8	○	◎	◎
	A006360	GS건설	15,790	0.35	건설,건축관련	1,272	3월	255	385	증가	30.3	51.2	○	◎	◎
	A007310	오투기	15,029	0.82	필수소비재	1,220	3월	310	361	증가	29.6	16.5	△	◎	◎
	A071320	지역난방공사	11,185	0.47	유틸리티	3,418	4월	449	869	증가	25.4	93.5	△	◎	◎
	A004000	롯데정밀화학	10,823	0.53	화학	1,115	3월	357	403	증가	36.2	13.1	○	◎	◎

자료: FnGuide,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연결 재무지표 기준, 애널리스트 추정치 사용 (일부 수치 보정), 리츠사 제외

코스피 고배당기업 - 금융사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금융사 가운데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목록이다. 우수형은 주로 보험사가 해당되고 노력형은 주로 증권과 은행이 해당된다.

표 6. 시가총액 1조 이상 코스피 고배당기업 혜택요건 충족 금융사

구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억 원)	PBR (배)	W126업종명(대)	지배당기준익 (억 원)	배당 기준월	보통주현금배당 (억 원)	배당금액 변화	배당성향 (%)	배당증가율 (%, YoY)	우수형	노력형	
			26.01	26.01		2025E		2024A 2025E	24A/25E	2025E	24A/25E	배당성향 40% ▲	배당성향 25% ▲	배당증가율 10% ▲
우수형	A032830	삼성생명	318,400	0.86	보험	23,828	12월	8,081 11,182	증가	46.9	38.4	◎	◎	◎
	A000810	삼성화재	216,943	1.06	보험	21,046	3월	7,567 9,609	증가	45.7	27.0	◎	◎	◎
	A323410	카카오뱅크	101,603	1.69	은행	4,661	3월	1,715 2,144	증가	46.0	25.0	◎	◎	◎
	A005940	NH투자증권	74,120	0.87	증권	9,464	3월	3,105 4,043	증가	42.7	30.2	◎	◎	◎
	A029780	삼성카드	60,478	0.64	은행	6,503	3월	2,988 3,244	증가	49.9	8.6	◎	◎	○
	A031210	서울보증보험	32,083	0.69	보험	2,340	4월	2,000 2,000	유지	85.5	0.0	◎	◎	△
노력형	A316140	우리금융지주	200,036	0.79	은행	32,860	3월	8,910 9,915	증가	30.2	11.3	○	◎	◎
	A005830	DB손해보험	87,509	0.90	보험	14,839	3월	4,083 4,870	증가	32.8	19.3	○	◎	◎
	A039490	키움증권	81,910	1.12	증권	11,124	12월	1,784 2,930	증가	26.3	64.3	△	◎	◎
	A016360	삼성증권	68,493	0.87	증권	10,096	12월	3,126 3,569	증가	35.4	14.2	○	◎	◎
	A138930	BNK금융지주	48,201	0.91	은행	8,409	3월	2,074 2,303	증가	27.4	11.0	△	◎	◎
	A175330	JB금융지주	47,281	1.81	은행	7,056	3월	1,897 2,172	증가	30.8	14.5	○	◎	◎
	A003690	코리안리	22,190	0.54	보험	3,170	4월	910 1,072	증가	33.8	17.7	○	◎	◎

자료: FnGuide,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연결 재무지표 기준, 애널리스트 추정치 사용 (일부 수치 보정), 리츠사 제외

코스피 고배당기업 - 지주사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지주사 가운데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목록이다. 2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지주사와 사실상 지주사로 여겨지는 순환출자 중심회사를 지주사로 설정했다. 우수형에는 비금융 지주사가 많았고 노력형에는 금융 지주사가 많았다. 특히 고배당 지주사는 배당기준월이 1Q26으로 설정돼 있었다.

표 7. 시가총액 1조 이상 코스피 고배당기업 혜택요건 충족 지주사

구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억 원)	PBR (배)	W126업종명(대)	지배당기준익 (억 원)	배당 기준월	보통주현금배당 (억 원)	배당금액 변화	배당성향 (%)	배당증가율 (%, YoY)	우수형	노력형	
			26.01	26.01		2025E		2024A 2025E	24A/25E	2025E	24A/25E	배당성향 40% ▲	배당성향 25% ▲	배당증가율 10% ▲
우수형	A005490	POSCO홀딩스	243,204	0.43	철강	10,614	3월	7,575 8,221	증가	77.5	8.5	◎	◎	○
	A003550	LG	125,536	1.17	상사, 자본재	12,251	3월	4,687 5,158	증가	42.1	10.0	◎	◎	◎
	A081660	미스트홀딩스	25,390	3.39	화장품, 의류, 완구	2,393	4월	695 966	증가	40.4	39.1	◎	◎	◎
	A001430	세아베스틸지주	20,800	0.55	철강	669	3월	385 434	증가	64.9	12.5	◎	◎	◎
	A001800	오리온홀딩스	12,178	0.67	필수소비재	1,280	3월	481 532	증가	41.6	10.6	◎	◎	◎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300,432	2.45	조선	23,718	3월	3,606 6,119	증가	25.8	69.7	△	◎	◎
노력형	A316140	우리금융지주	200,036	0.79	은행	32,860	3월	8,910 9,915	증가	30.2	11.3	○	◎	◎
	A267250	HD현대	155,221	1.82	조선	9,880	3월	2,544 2,875	증가	29.1	13.0	△	◎	◎
	A138930	BNK금융지주	48,201	0.91	은행	8,409	3월	2,074 2,303	증가	27.4	11.0	△	◎	◎
	A175330	JB금융지주	47,281	1.81	은행	7,056	3월	1,897 2,172	증가	30.8	14.5	○	◎	◎
	A000240	한국엔컴퍼니	23,402	0.81	자동차	3,855	3월	947 1,044	증가	27.1	10.3	△	◎	◎
	A002790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0,540	1.12	화장품, 의류, 완구	1,521	3월	252 397	증가	26.1	57.8	△	◎	◎

자료: FnGuide,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1: 연결 재무지표 기준, 애널리스트 추정치 사용 (일부 수치 보정), 리츠사 제외

주2: 지주사 = 25년 4월 기준 공정위 등록 상장 지주사와 사실상 지주사로 평가되는 순환출자 중심 기업

[참고] 지배구조 우수기업, 배당도 열심히 한다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주요지표

2026년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업 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환원 및 배당정책과 관련해 주요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O/X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환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는 ①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여부와 ② 해당 정책을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는지 여부가 있다. 배당정책과 관련해서는 ① 현금 배당에 대해 주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와 ② 배당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는지 여부가 핵심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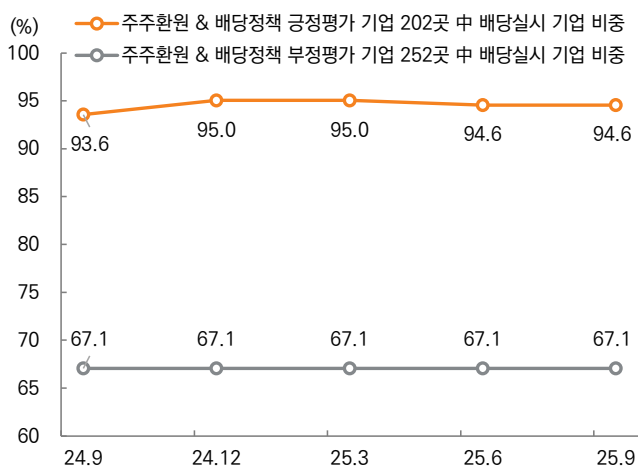
지배구조 우수기업, 높고 안정적인 배당성향, 꾸준한 배당지급이 특징

이들 4개 주주환원·배당정책 관련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O인 기업과 3개 이상이 X인 기업을 구분해, 배당과 관련한 통계적 특성을 비교했다. 긍정 평가(O) 항목이 3개 이상인 기업은 총 20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평균적으로 191개 기업(약 95%)이 최근 5개 분기 동안 TTM 기준으로 꾸준히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X) 항목이 3개 이상인 기업은 총 252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평균 169개 기업(약 67%)만이 최근 5개 분기 동안 TTM 기준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 평가 기업군에 비해 배당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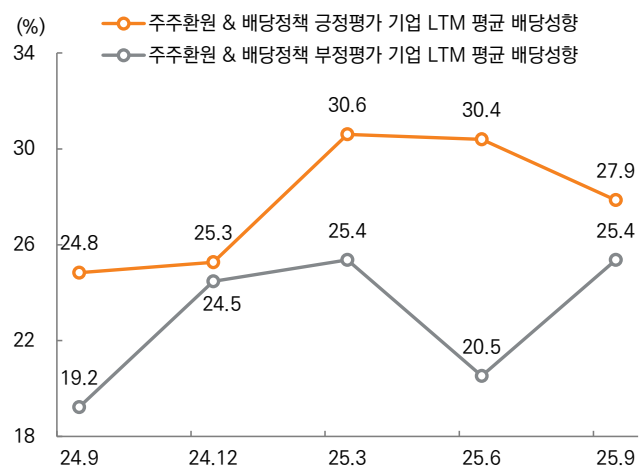
배당성향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긍정 평가 기업군은 최근 5개 분기 동안 25~30%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며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반면 부정 평가 기업군은 19~25% 수준의 배당성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낮고, 분기별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단순한 배당수치뿐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된 주주환원 및 배당정책 관련 정성적 지표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긍정평가 집단의 꾸준한 배당실시 이력



자료: FnGuide,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각 시점 TTM 기준

그림 2. 긍정평가 집단의 더 높고 안정적인 배당성향 추이



자료: FnGuide,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각 시점 TTM 기준
주: 상하위 5% 극단값 제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